한여름에 보는 연화장세계

전국 사찰 지자체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야경TS 등 부대행사 다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자체 축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하소백련축제 2018'을 진행한다.

연꽃의 계절이 왔다. 연꽃축제도 시작됐다. 연꽃으로 유명한 전국의 사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곱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이는 연꽃이 화생의 상징임을 말하며, 우주 창조와 생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다. 그래서 서방정토는 연꽃 속의 세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연화장세계라고 부른다. 서방정토가 연꽃 속의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연꽃과 함께 하는 세상이다. 이 역시 연화장세계인 것이다. 극락세계 서방정토를 서원하며 금생의 연화장세계를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축제가 시작되는 연밭을 찾아가 본다.

연꽃의 만개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축제 시기 역시 조금씩 다르다. **서울 조계사**가 7월 7일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라는 제목으로 제4회 조계사 연꽃축제를 시작한다. 500여 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9월 중순까지 불자들과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진행된다. 누대에 걸친 선망부모와 인연 영가들의 이고 복락을 기원하는 △백중 49재가 7월 8일 입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7월 20일에는 연꽃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500여 개의 연꽃 항아리마다 미꾸라지를 방생하는 △'연꽃 더불어 방생'을 진행한다. 7월 25일에는 장애인불자와 함께 하는 △'조계사,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조계사는 지난 조계사 장애인불자 대법회에서 분기별로 법회 또는 다른 형태의 장애인 불자 모임의 자리를 약속한 바 있다. 두 번째인 이번 법회는 장애인 불자들을 '야경 템플스테이'에 초청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작은 음악회를 함께 한다. 7월 28~30일(2박3일)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7세~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물놀이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조계사 물 만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획사진전의 수상작 23점이 전시된다. (02)768-8574.

백련으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하소백련축제 2018'을 진행한다. 청운사 앞으로 펼쳐진 9900㎡의 대규모 연지에서 만개한 백련의 청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청운사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른 공연과 문화행사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063)542-8943.

남양주 봉선사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봉선사 연꽃국제는 연꽃을 통한 지역발전 및 세대 간 공감 짓기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 청소년 교육, 대중문화예술, 사찰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축제이다. 더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통등 전시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자선행사인 행복바라미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기간 중에는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콘서트 등 각종 상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먹거리 장터 △직거래 장터 △만들기 체험 △108보물찾기 등이 진행된다. (031)527-1951.

서울 봉원사는 8월 중으로 육법공양의 의미를 지닌 제16회 '서울연꽃문화대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봉원사 연꽃축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행사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서동요로 알려진 부여 궁남지는 백제 무왕 35년(634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인공연못이다. 축제 기간 동안 백련, 홍련, 수련, 가시연 등 50여 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 축제인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선정 2015~2018 4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축제기간 중에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서동선화 임팩트 쇼 등의 주요행사와 △연씨목걸이 및 연잎모양 촛대 만들기 등 다양한 상설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특판장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41)830-2211

경기도 양평군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교육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과 꽃의 정원 (재)세미원은 6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세미원 연꽃문화제 2018**'을 개최한다. 6만여 평 야외정원에는 홍련, 백련 등 다양한 연꽃이 가득 피어나고 기분 좋은 연향으로 가득하다. 연꽃 외에도 라이트아트, 흙인형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작가들과 함께 작품 만들기를 체험하는 작가 공방체험도 진행된다. △연꽃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스탬프투어 △인증샷 이벤트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031)775-1835

1997년부터 연꽃축제를 개최해온 전남 무안군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무안연꽃축제 2018**'을 개최한다. '무안연꽃축제'는 남도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10만 평의 연못을 가득 채운 백련이 장관을 이룬다. 축제 기간 중에는 △개막 축하공연과 △군민합창대회 △연자방 소망등 달기 △연차시음 및 행다 시연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등이 함께 진행된다. (061)450-5472.

전국 연꽃축제 일정

사찰 및 지자체	기간 및 문의
서울 조계사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	7/7~9월 중순 (02)768-8574
서울 봉원사 '서울연꽃문화대축제'	8월 예정 (02)392-3007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7/14~22 (031)527-1951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7/13~22 (063)542-8943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 연꽃문화제'	6/22~8/19 (031)775-1835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7/6~15 (041)830-2211
전남 무안군 '무안연꽃축제'	8/9~12 (061)450-5472


대상작, '빛나는 밤의 아미타여래' (조원영 · 삼육초교6)

동심의 눈으로 그린 문화재들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7월 3일~8월 31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시관 1층 중앙홀에서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지난 5월 21일 어린이들이 문화재와의 소통을 통해 꿈과 희망을 표현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개최했던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모았다. 그림은 광주 · 전남 지역 초등학생 374명이 참가해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문화재를 직접 보고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현직 관련학과 교수와 미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조선대학교미술관장 김익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어린이들의 말고 순수한 심성으로 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선정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표현기법이 다양해지고 세련된 기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작은 '빛나는 밤의 아미타여래'를 그린 삼육초등학교 6학년 조원영 어린이가 수상했다. 그 밖에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0명, 가작 20명, 입선 80명이 선정됐다.

박재완 기자

'고려를 이야기하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600회 특집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7월 25일,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 중 600회 특집으로 '고려를 이야기하다'를 마련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2006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어 600회를 맞이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일이기도 한 7월 25일에 '고려 오백년을 거닐다 1, 2부', '금속공예로 본 고려인의 일상', '고려청자의 탄생'을 주제로 전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18년 12월 4일에 개막될 예정인 특별전 '대고려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을 앞두고 고려의 역사와 미술을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 설명회가 될 것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전 〈칸의 제국 몽골〉(2018. 5. 16.-7. 17.)의 전시 설명회도 계속된다.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마지막 두 차례의 전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무병장수와 극락왕생(불교회화실, 7/4)', '무덤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여인의 화장품(조선실, 7/11)', '신석기인의 생활(신석기실, 7/18)'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